

# 돼지고기 소비촉진 활동 활발히 전개

- 지부 소비촉진 캠페인, 백화점 특별할인 판매

- 홍보부 -



▲ 고성지부, 돼지고기 소비 홍보 및 시식회

지난 11월과 12월은 수개월 동안 지속된 소비위축과 출하물량 증가에 기인하여 폭락한 돈가 회복에 지부와 회원들의 노력이 돋보였던 기간이었다.

전국 회원 지부에서는 소비촉진 행사의 일환으로 돼지고기 시식회, 돈육요리 강습회, 돈육소비 홍보 및 캠페인 등을 개최하는 한편 이들 행사를 통해 지부 회원 가족간 결속을 다지는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다. 또 생산농가들의 이러한 노력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하여 시중 대형 유통점들은 돼지고기 근당 700원 판매 등의 슬로건을 걸고 국산 돈육소비 확대 및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보은지부(지부장: 이문섭)는 지난 11월 11일 보은군 농민대회 일원으로 참가, 돼지고기 소비촉진 시식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고 고성지부(지부장: 이영춘)는 지난

11월 21일 지역 양돈 관련인사 1천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고기 소비촉진 캠페인을 가졌다. 또한 경상남도 협의회(회장: 하오조)는 돼지가격 인하의 대책으로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1개월간 돼지고기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소비촉진 운동에서는 시식회 개최와 각종 돼지고기 요리에 대한 홍보, 돼지고기 소비홍보를 위한 전단 배부 등을



▲ 제주지역 양돈지도자 총회 때의 요리 강습 모습



▲ 경남도협회의 소비촉진 운동 전개



▲ 그랜드 백화점의 돈육 특별 할인 판매



▲ 진로유통의 돈육 특별할인 판매

시행하였고 할인된 가격으로 돼지고기 판매도 실시하였다.

합천지부(지부장: 하수갑)에서는 지난 12월 15일 합천 가축시장 개장 기념 행사에서 돼지고기 소비촉진 캠페인 및 무료시식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95 양돈 지도자 총회에서 제주 지역은 요리강습회와 무료시식회를 개최하여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돼지고기 요리의 확대 보급을 꾀하였다.

한편 대형 유통점에서는 돈

육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하였는데 그랜드 백화점은 지난해 송년 바겐세일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 농민돕기 돈육 특별판매」를 실시하였다. 돼지고기 폭락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키 위하여 산지 농가에서 직접 돼지를 구입하여 불고기용 돼지고기와 등심살은 600g 한근에 1,500원, 돼지갈비, 삼겹살, 목살 등은 2,200원에 판매하여 일반 시중 정육점보다 2,

100에서 1,600원 정도 저렴하게 판매하였다.

또한 진로유통은 불고기용 600g에 1,380원에 판매하고 돼지 목살의 경우는 600g당 2,700원에 판매하는 등의 초특가 세일을 실시하였다.

청주의 후생사백화점에서는 불고기용 전·후지 한근에 700원으로 한정 판매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